

마땅히 행할 길을 후대에게

잠언 22:1-6, 에베소서 6:4

최정웅 목사님

서론 : 성경은 후대 운동을 강조하고 있다.

아마 우리 교단만큼 후대에 대해서 강조하는 교단도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을 걸고 후대를 살리겠다 하는 단체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다. 어르신들로부터 램프턴 하면 눈이 반짝반짝해지는 교회, 단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믿는다. 사실 성경은 후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다. 창세기 1:28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다. 후대에 대한 이야기다. 신명기 6:4-9에 보니까, 복음의 비밀을 반드시 후대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사야 6:13에는 후대, 거룩한 씨를 남은 자 그루터기라고 설명하고 있다. 스바냐 2:7에는, 그 땅이 남은 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우리 주님도 후대에 관심이 지대하셨다. 누가복음 18:16에 보면,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현장에 우리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누가복음 23:28에 보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여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슬피 울고 있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부활하신 후에도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21:15이하에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하고 간곡하게 부탁하셨다. 복음운동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고 확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바울이 디모데후서 2:1-7을 보면, 이 언약의 바톤을 계속 전달하라고 램프턴인 디모데에게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다. 그 최고의 방법이 후대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후대에게 전달해야 할 마땅히 행할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한다. 7월은 훈련의 달이다. 이달 말부터 집중적으로, 리더수련회, 세계램프턴대회, 전교인수련회와 각종 합숙훈련들이 진행된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목상하면서, 이 훈련의 흐름 속에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게 되기를 축복한다. 후대에게 이번 여름에 집중적으로 전달해야 할 마땅히 행할 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1.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가르쳐야 한다.

첫 번째다. 후대에게 가르쳐야 할 첫 번째 것은, 복음으로 충만해야만 하는 사실이다. 이것을 전달해야 한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우리 후대가 발견하게 해 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1) 오늘 본문 잠언 22:1에 보니까, “사람이 택해야 할 것은 물질, 재물보다는 명예”라고 했다. 여기에서 명예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실은 ‘좋은 이름’이라는 뜻이다. 재물보다 중요한 것은 좋은 이름을 가지는 것이라는 말이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정체성을 바르게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 내가 마귀의 자녀인가, 하나님 자녀인가 하는 것에서 모든 것이 나오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 주셨다. 복음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한다. 그것을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제대로 전달해 주어야 한다. 복음 안에서 나를 찾으라는 말이다. 그게 안 되면 끝까지 헤매게 된다.

(2) 그러면서 두 번째로 더 이야기하는 것은, “금이나 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했다.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금, 은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인간은 한 순간도 살 수 없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살 수 없고 나무는 땅을 떠나면 살 수 없는 것 같이, 인간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잠언 22:3에, “모든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후대에게 바르게 전달해 주라는 것이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후대가 반드시 깨닫게 해 주어야 한다. 이것 모르면 진짜 불효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자기가 누구인지 알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총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임을 알게 해야 한다.

(3) 그런데 인간이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다. 잠언 22:3에, 이것 때문에 인간은 재앙을 만나게 되었다. 재앙이 올 수밖에 없게 되었다. 어디를 나가도 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 이 재앙을 피할 수 있고, 재앙을 떠날 수 있는 슬기를, 지혜를 가르쳐야 한다. 우리 후대가 인간에게 재앙이 온 이유와, 이 재앙을 피하는 참된 지혜를 깨닫게 되도록, 정말 복음을 원색적으로 전달해 주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마귀의 자녀 된 인간에게는 여섯 가지로 재앙이 오게 되어 있다. 근본문제, 위상문제, 정신문제, 육신문제, 내세문제, 후대문제라는 재앙을 피할 길이 없는데, 이것을 아는 지혜를 전달해야 한

다.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창세기 3:15에,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을 처음부터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다. 이사야 7:14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했다. 처녀에게서 잉태하여 태어난 아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다.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결과 요한복음 19:30의 말씀대로, 모든 문제를 다 끝내 버리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다. 이 복음으로 충만해질 때, 후대에게 임할 모든 재앙이 무너지게 된다. 후대에게 와 있는 모든 갈등, 상처와 실패의 원인 각인이 무너지게 된다. 이 참된 치유를 후대에게 마땅히 전달해야 하는 것이다. 복음 안에서 정체성을 찾고,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며, 재앙을 이길 해답을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 다시 말씀드린다.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복음 안에서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며, 복음 안에서 재앙 이길 해답을 분명하게 붙잡도록 해 줘야 한다.

2. 복음 안에서 서밋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야 한다.

이유를 알았으면, 큰 두 번째로 후대에게 전달할 것이 있다.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이다. 복음을 통해서 서밋으로 가는 길을 전달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복음 안에서 서밋으로 갈 수가 있는가? 이 부분을 찾아주어야 한다. 안내해 주어야 한다.

(1) 잠언 22:4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다. 여호와의 경외하는 것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말이다.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표가 바로 예배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생명처럼 전달해 주어야 한다. 사랑하는 참사랑 가족 여러분, 후대 앞에서 여러분이 가장 누리셔야 하는 것이 예배임을 아셔야 한다. 예배 성공이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증거해야 한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후대에게 보여주어야 후대가 살기 때문이다. 우리 중직자들이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축복한다. 이 예배 시간에 영혼, 마음, 육신이 완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응답을 받으시기 바란다. 정말 예배 성공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한다. 시카고의 김 목사님이 좀 강하시기는 하다. 이분이 아이를 맡았는데, 이번에도 미국에서 램프턴 15명을 국토대장정에 보내서 완주하게 했다는 것이다.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다섯 편의 설교를 녹취하라고 한다. 영어도 안 되고 공부할 것도 많은데 매주 설교 다섯 편을 녹취해야 하니, 처음에는, ‘내가 이 것 하려고 여기 왔다. 다른 데 가야 하나. 어떡해야 하지.’ 생각했다고 한다. 이걸 못 하면 푸시 업 200개를 시킨다는 것이다. 고민과 갈등이 쌓여가는데, 역지로 3개월을 한 것이다. 3개월 만 버텨 보라. 3개월을 했더니 그때서야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 왜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는지 알겠다. 여기 오기를 잘 했구나.’ 그렇게 계속 했더니 성적도 오르더라는 것이다. 그 말을 들으니까 이분을 업어주고 싶더라.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자기 자녀도 그렇게 못 해서 내버려두는 판에 말이다. 아이들이 밤에 지도를 그리면 어떻게 하는가. 어떤 부모는 되게 혼을 내고 때리기도 하는 모양이더라. 자기도 점수 몇 점 못 받았으면서 자녀가 성적 안 나온다고 혼을 내고 때리고 하는 사람도 있다. 여기 증인들이 다 있으니까 말할 수 있지만, 나는 성적 때문에 아이를 때리거나 혼내거나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딱 한 번, 교회 섬기도록 피아노를 배우라고 했는데 싫다는 것이다. 그때 한 번 혼을 냈다. 피아노 선생님이 다른 교회 권사님인데, 목회자 자녀들은 교회 반주자로 기르기 위해서 돈도 적게 받으면서 가르쳐 주셨다. 그것 때문에 와 주셨는데 안 하겠다고 하니 대나무 자로 종이를 때렸다. 그때는 아이가 나를 참 원망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덕본인지, 지금도 세 딸이 다 반주를 할 수 있다. 섬길 사람이 없으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나와서 반주를 한다. 교회를 당연히 섬기는 것이다. 아이들을 쓸데없는 것 때문에 압박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제대로 섬기도록 만들어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 목사님이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반주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때 보면 반주자보다 더 잘 한다. 동생을 보니까 대구지역 사모님 찬양대 지휘를 하더라. 목사 자녀로 태어나서 배웠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때로는 감때은 목사가 부럽다. 목사의 아들이라서 반주를 배웠는데, 반주자 없으면 그 똥똥한 몸을 이끌고 직접 피아노를 친다. 부럽고 고맙고 그렇더라. 정말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다른 잔소리는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 어떤 목사님이 교이는 아닌데 교이처럼 자랐다. 그래서 자기 아이들에게 가르쳤다. “너는 테니스와 아코디언을, 너는 골프와 피아노를 배워라.” “왜 아빠가 이루지 못한 한을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세요?” “네 말이 맞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고아였기 때문에, 피아노도 없고 운동도 할 수 없었다. 재능이 있어도 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너희는 온 세계

를 누비는 국제 신사가 되어야 한다. 너희가 미국 시민 아니냐. 국제 신사, 숙녀로 살려면 약기 하나는 다룰 수 있어야 하고, 운동 하나 정도는 할 줄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기회를 주고 싶어서 그런 것이다. 내가 돈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이후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만약 그때 아버지 말씀을 듣고 하기 싫더라도 제대로 했더라면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얼마나 멋이 있는가. 정말 가르쳐야 할 것은 안 가르치고 쓸데없는 것만 가지고 아이들을 누르며 살아간다. 우리는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겠다. 어떤 분이 말하더라. “나는 목사의 딸이다. 우리 아빠는 훌륭한 목사였는지는 모르지만 아빠로서는 뺑뺑이었다.” 자기들을 돌봐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니, 설교하고 학교에서 교수로서 가르치고 성경 66권을 주석한다면 뭘 할 시간이 없다. ‘아빠가 이 귀한 일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헌신하셨구나.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희생하셨구나. 어릴 때는 몰랐지만, 아빠의 헌신이 너무 귀중한 일이었구나. 지금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는구나.’ 해야 할 것 아닌가? 나이가 들었는데도 아직도 ‘아빠로서는 뺑뺑이었다’ 하고 있으면 철이 전혀 안 든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정말 이루고자 하는 것은 이룰 수가 없게 된다. 서밋의 길은 갈 수 없게 된다. 철이 들면 알아야 될 것 아닌가. 이번에 고향에 다녀왔는데 후회가 되는 것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아버님이 일을 하고 밤중에 들어오신다. 그때 호롱불 켜놓고 공부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싶으셨을 텐데, 나는 아버지 콧노래 소리가 들리면 공부하다가도 일부러 불 꺼놓고 잠든 척을 했었다.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지금 생각하면 내가 참 불효자였구나 싶다. ‘내가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구나’ 하고 행복해 하셨을텐데. 그것을 이해를 못 했었다. 그게 참 죄송하더라. 산소 앞에서 죄송하다는 생각을 했다. 마땅히 행할 길을 후대에게 가르쳐야 한다. 가르치지 말아야 할 것은 안 해도 된다. 내가 졸업할 때 2등 상 상패와 상장을 받아서 갔다. “이 자식 공부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받아왔지?” 놀라셨었다. 공부하는 모습을 못 보셨으니까. (웃음) 정말 해야 할 것을 놓쳤기 때문에 정말 할 수 있는 많은 것을 놓쳤구나 싶었다.

(2) 서밋이 되려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잠언 22:5에,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울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하나님과 안 맞는 길로 가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복음 놓치게 하는 가시와 울무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3오늘이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제대로 하는데 전도 안 되는 사람은 없다.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은 사람이 없다. 전도제자가 된다. 말만 듣지 ‘저 소리 또 하나’ 하는 사람은 아무 것도 되어지지 않는다. 자기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램넌트가 가질 수 있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김 목사님이 아이들 눈물 빼는 정도로 하게 했더니,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라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정시기도, 정시에 배, 다락방, 미션 홈, 지교회로 하도록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다. 안 한다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걸 했을 때 내게 주어지는 엄청난 축복, 평안, 행복, 의미, 가치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의미요 가치이다. 그 속에서 3오늘이 되어지기를 축복한다. 후대가 어디를 가든지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것이 후대에게 마땅히 전달해야 할 내용이다.

(3) 세 번째로, 이것을 가지고 자기의 일에 능숙해지게 해 주어야 한다. 잠언 22:29에 보니까,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존귀한 자가 될 것이라는 말이다. 이것을 전문성이라고 한다. 시편 78:70-72에, 복음을 누리고 있는 다윗이 믿음의 성실함을 가지고 손의 공교함을 누렸는데 이스라엘과 세계를 살리는 왕이 되었다. 복음을 누리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지키고 있으면 반드시 서밋으로 가는 날이 오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시간표가 온다는 것이다. 창세기 41:38에, 바로왕 앞에 서는 시간표가 요셉에게 왔다. 사도행전 27:24에, 가이사 앞에 서는 시간표가 반드시 도래한다. 왕 앞에 서서 복음을 말하는 그날이 온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가이사 집 사람들 중 몇 명이 복음을 받고 제자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후대 운동의 미래다. 우리 램넌트들이 당당히 왕 앞에 서서 정확한 복음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 날을 두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집중하는 응답을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되겠다.

결론 : 후대 훈련에 생을 걸어야 한다.

(1) 말씀을 마지쳤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언 22:6을 깊이 마음에 담아야 되겠다. 우리 후대가 늙어서도 이 복음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되겠다. 이 일에 우리가 사활을 걸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훈련을 받아야 할 이유다.

비전스쿨에 있을 때는 잘 했다. 복음소식을 암송한 것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 놀랐다. 그런데 지금 만나서 물어봤는데, 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절반쯤 할까 말까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돈까지 걸고 다시 훈련시켰다. 그 상금 받아서 풍풍 샀다가 후회했다고 하더라. (웃음)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안 되고, 중학교고 가니까 또 안 되고, 대학 가고 청년이 되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얼마나 기막힌 현실인가. 어떻게 심어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대를 이어 중직자가 되어 교회를 지킬 수 있게 되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제대로 기르면 현당의 주역이 우리 후대 중에서 어느 날 나오게 되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늙어서도 복음의 비밀을 절대 잊지 않고 이 복음운동을 떠나지 않게 해야 할 것 아닌가. 나는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어떻게든지 우리 참사랑교회가 복음운동하는 교회, 복음 서밋이 나오는 교회, 전도제자가 나오는 교회가 되어서 지역 민족 세계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다. 이 각인, 뿌리, 체질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2) 그래서 잠언 22:17에,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돌지아라.” 지혜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잠언 22:18에는, “이것을 네 속에 보존하고 네 입술 위에 있게 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21절에는 말씀했다.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한다.”고 했다. 우리 램넌트가 복음을 듣고, 마음 속에 깊이 보존하고, 입술로 항상 그것을 말하며 암송하고,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 만큼 훈련시켜 주라는 것이다.

(3) 지금도 나는 피아노를 단음으로밖에 못 친다. 내 주변에는 피아노가 없었던단. 품급으로 4부 반주를 하는 법을 배우다가 더 하지 못했다. 그게 너무 아쉽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에 생을 걸어야 한다. 잠언 22:15에는, “징계하는 채찍이 미련한 것을 쫓아낸다.”고 했다. 이번 주에 채찍 하나씩 준비하라는 말이 아니다. 그만큼 강하게, 강도 높게 훈련을 하라는 것이다.

여러분, 후대 훈련에 전부를 투자해도 좋다. 이번 리더수련회와 램넌트대회의 흐름, 모든 훈련 스케줄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그 속에서 우리 후대가 복음이 확립 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절 시즌에는 다 집으로 돌아간다. 호텔이 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간에 호텔을 빌려서 미추렘넌트대회를 한다. 처음에는 미국에서 반발이 많았다. ‘아니, 본부에서는 미국의 문화를 너무 이해를 못 한다, 추수감사절 명절 때는 다 집에 가야 한다, 그런데 왜 이런 날에 집회를 해서 미국의 문화를 무너뜨리느냐’ 하는 불평이 많았다. 그런데 다른 때 하면 휴가를 내서 해야 하니까 시간도 돈도 없어서 못 한다. 지금은 대회에 천 명 가까이 모인다. 미국 정부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이 누구인데 명절에 모여서 이런 행사를 하는가 하고, 여러분, 뭐가 도대체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쏟아야 되겠는가. 그들은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 때 받은 세 강의의 메시지를 1년 내내 달달 외우고 있더라. 1년 동안을 그 메시지를 가지고 버티고 싸워서 승리하고 있더라. 훌륭한 램넌트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가 복음이 확립되도록 도와야 한다. 우리 후대가 마땅히 행할 길을 깨닫고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말이다. 그 터전도 우리가 반드시 전달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는다고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생을 살고 나서 우리 후대에게 무언가를 남겨주어야 하지 않는가? 지중해 바다를 보니까 얼마나 깨끗한지 모른다. 오물이 하나도 없다. 바다가 너무 맑고 깨끗하다. 에메랄드빛으로 바다가 빛난다. 모두가 아껴서 후손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그런 정신을 가져야 우리 후대에게 무언가를 남겨줄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 후대들은 우리보다 더 생명 걸고 복음운동 하시기를 축복한다. 나는 복음운동을 위해서 사랑하는 장로님과 교인들 절반을 잃었다. 나에게 적게 모이는 것을 가지고 뭐라 말하지 마라. 그 한 가지 이유를 위해서 내가 있었던 것이다. 어떤 희생 없는 우리의 갈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다.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우리 교회, 중직자, 참사랑교회가 되기를 축복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생이 언제 끝날지 저희는 모릅니다. 우리 사는 것은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없습니다. 우리 생이 얼마나 되든지 간에, 우리가 후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운동, 복음 운동, 세계 살릴 운동을 후대만이 할 수가 있는데, 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미련한 저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시고, 여기에 대해 투자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단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총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후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지금 눈물 흘리고 힘들더라도, 후에는 웃으며 감사할 수 있도록 후대 살릴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